

심리적 특질의 본질에 대한 한국 대학생의 믿음*

최 유 정¹⁾

송 현 주²⁾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한국 대학생들이 심리적 특질이 안정적인지, 지속적이지, 출생 시부터 차이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생물학적인 것에 바탕을 두는지 여부에 대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한국 대학생이 심리적 특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믿음을 알아보기 위해 연구 1은 대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고, 연구 1의 결과를 재검증하고 일반화할 수 있는 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연구 2는 다른 대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결과적으로 한국 대학생들은 심리적 특질이 변화할 가능성이 높고, 지속적이지 않으며, 생물학적인 요소보다는 환경적인 요소에 영향을 더 받는다는 증진적 관점(Incremental view)과 유사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관점은 개념적 정합성을 가진 형태로 존재했다. 또한 ‘똑똑한’, ‘우둔한’, ‘고집 센’은 다른 심리적 특질들보다 더 안정적이고 선천적인 특질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공부 못 하는’, ‘썩썩한’은 더 변화될 여지가 많은 특질이라고 생각했다. 본 연구 결과는 심리적 특질의 본질에 대한 한국 대학생의 믿음을 검증하고 일반화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 연구로서, 앞으로 심리적 특질과 관련해서 진행될 많은 연구들의 경험적 토대가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주요어 : 특질, 본질, 사회 인지, 사람 지각

* 실험을 도와준 연세대학교 아동 발달 연구실의 연구원(김은영, 윤정은, 김유진, 진경선, 김민영, 원정애, 이윤하, 이우열), 학부생 연구 조교, 연구에 협조해주신 참가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본 연구는 2009년 연세대학교 BK21 인지 및 심리과학 전문 인력 양성 및 실용화 사업단 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으며, 2009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의 일부임.

1)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대학원생

2) 교신 저자: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조교수 (E-mail: hsong@yonsei.ac.kr)

I. 서 론

지금 친구와 약속한 시간에 기다리고 있는데 친구가 늦는다고 가정해보자. 이 친구는 지난번 약속에도 늦었다. 그럼 이 친구는 왜 늦는 것일까? 우리는 이 친구가 늦는 이유에 대해서 크게 두 종류의 예상을 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원래 늦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늦는 것이 당연하고 앞으로도 늦을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 늦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차가 막혔다거나 갑자기 일이 생겨 늦는 것이므로 앞으로는 늦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이렇게 친구의 ‘늦는’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추론을 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상호작용을 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그 이유는 특질을 이해하는 방식에 따라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이 결정되기 때문이다(Heyman & Gelman, 1999). 만약 이 친구가 늦는 이유가 그 친구 내부에 있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늦을 것이라고 추론한다면, 그 친구와 다음에 만날 때 늦게 나간다든지, 다른 일을 하면서 기다리는 것과 같은 대처행동을 할 것이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는 환경 때문에 늦었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친구가 다음 약속에는 정시에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예전처럼 약속 시간에 맞추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특질에 대한 추론을 이해하는 것은 타인과 상호 작용하는 데도 중요하지만, 타인 및 자아의 이해에 있어서도 매우 기본적인 요소로 작용한다(Lockhart, Nakashima, Inagaki, & Keil, 2008). 자신의 특질에 대해서 어떻게 이

해하는가에 따라 사람의 행동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지금은 수줍음이 많지만 노력 또는 환경에 의해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수줍음을 타지 않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렇지만 자신이 수줍음을 타는 것이 지속적이고 선천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사람들이 심리적 특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사람들이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는 방식과 타인과 상호 작용하는 방식을 예측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대학생들이 심리적 특질에 대해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한국 대학생들이 심리적 특질의 근원(origin)과 안정성(stability)에 대해서 어떠한 믿음을 가지는 지 알아 보고자 한다. 특질의 근원에 대한 믿음은 특질이 선천적인 것인지, 유전자나 뇌와 같은 생물학적인 것에 기반을 둔 것인지에 대한 믿음을 말한다. 특질의 안정성에 대한 믿음은 특질이 고정되어 있고 비가변적이라고 믿는지 여부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대학생들이 다양한 심리적 특질에 대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속성을 이 두 가지 차원에서 검증해보고자 한다.

1. 특질에 대한 두 가지 관점

특질의 근원과 안정성에 대한 관점은 크게 실체적 관점(entity view)과 증진적 관점(incremental view)으로 나눌 수 있다(Dweck & Leggett, 1988). 실체적 관점은 특질이 안정적이

고 고정된 불변하는 실체라고 생각하는 믿음이다. 예를 들어 ‘씩씩함’에 대해 실체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렸을 때 씩씩했던 사람이 커서도 씩씩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환경에 의해 씩씩한 정도가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이렇게 특질에 대해서 실체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자신을 평가했을 때에는,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이 높아지며, 일을 할 때에도 충분한 자신감을 가지게 된다(Heine, 2005). 또한 일반적으로 특질에 대해 실체적 관점을 가지는 사람들은 특질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노력을 자신이 잘하는 분야에 효과적으로 집중시켜 좋은 성과를 얻거나 얻게 할 수 있다(Lockhart et al., 2008).

그렇지만 특질에 대해서 실체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쉽게 우울감을 느끼게 되고, 향상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게 된다(Heine, 2005). 또한 실체적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실패에 직면했을 때, 수행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Henderson & Dweck, 1990), 무기력해지며(Cain & Dweck, 1995), 더 쉽게 포기하고, 부정적인 자기 귀인을 하는 경향이 있다(Dweck & Leggett, 1988; Erdley, Cain, Loomis, Dumas-Hines, & Dweck, 1997; Heyman & Dweck, 1998).

이러한 실체적 관점과 비슷한 개념으로 본질적 관점(essentialism)이 있다(Lockhart et al., 2008). 이 관점은 사람이나 집단의 특정 특질이 그 사람이나 집단의 본질(essence)이라는 믿음이다. 특질에 대해서 본질적 관점을 가진 사람은 특정한 특질이 지속적이고, 생물학적

인 것에 기반을 둔 선천적인 것이며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Gelman, Heyman, & Legare, 2007). 특정 특질에 대한 본질적 관점은 그 특질을 포함하는 다른 대상과 상호작용할 때, 본질에 대한 정보에 근거해서 대상에 대한 다양한 지식의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는 이점이 있지만(Gelman et al., 2007), 특정 개인이 속한 집단 간에 편견을 증진시킨다는 부정적인 측면을 가지기도 한다(Demoulin, Leyens, & Yzerbyt, 2006).

두 번째는 증진적 관점으로 특질이 변화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향상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변화에는 노력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Heine, 2005). 예를 들어 ‘씩씩함’에 대해 증진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씩씩한지 그렇지 않은지의 정도는 지속적이지 않은 것이며, 노력하면 변화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증진적 관점을 가진 사람들에게 실패란 선천적인 능력의 부재라기보다는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신호로 간주된다(Heine, 2005). 따라서 증진적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실체적 관점을 가진 사람들보다 좀 더 탄력적인 대처 경향을 보인다(Cain & Dweck, 1995). 나아가 특질에 대해서 더 증진적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전반적인 부정적 평가를 덜한다(Erdley & Dweck, 1993).

그렇지만 특질에 대해서 증진적 관점을 가지는 것은 부정적인 측면도 가진다. 먼저 어떤 특질이든 변할 수 있다고 믿음으로써, 주력해야 할 대상을 찾지 못하고 모든 분야에 힘과 에너지를 배분하므로 특정 분야의 빠른

성취를 이루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또한 환경이나 교육, 노력을 통한 변화의 가능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개인이 가진 독특한 선천적인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개인과 맞지 않는 일을 강요할 수도 있다.

2. 본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한국 대학생들이 심리적 특질에 대해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전 연구에 따르면, 한국 어머니와 대학생들이 “아동”의 심리적 특질이 변화할 수 있고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증진적 관점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유정, 송현주, 2008). 본 연구는 “아동”이라는 한정된 연령층의 대상에서 벗어나, 일반적인 한국 대학생들의 특질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대학생들이 “사람”의 심리적 특질에 대해서 어떠한 형태의 믿음을 가지는 지 알아보고, 나아가 그것이 아동의 심리적 특질에 대한 믿음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요 질문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한국 대학생들은 일반적으로 사람의 심리적 특질에 대해 어떠한 관점(실체적 혹은 증진적 관점)을 가지는가? 둘째, 한국 대학생들의 심리적 특질에 대한 믿음은 개념적 정합성(coherence)을 가지는가? 셋째, 심리적 특질 유형에 따라 특질에 대한 믿음 양상이 달라지는가이다.

연구 문제 1. 한국 대학생들은 일반적으로 심리적 특질에 대해 어떤 관점을 가지는가?

심리적 특질에 대한 믿음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서양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써, 서양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실체적 관점 또는 본질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경향성이 높게 나타났다(Gelman et al., 2007; Haslam, Bastian, & Bissett, 2004; Lockhart, Chang, & Story, 2002; Lockhart et al., 2008). 그렇지만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문화권의 사람들은 증진적 관점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Dweck, Hong, & Chiu, 1993). 일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일본 대학생들은 행동을 결정하는 요소로서 환경을 중요시하는 증진적 관점을 가지고 있으며, 개인의 성격 특질이라는 것은 더 유연하고 노력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다고 한다(Choi, Nisbett, & Norenzayan, 1999; Dweck & Leggett, 1988; Markus & Kitayama, 1991). 같은 맥락에서 일본의 대학생들은 미국 대학생에 비해서 특질이 더 변화할 수 있으며, 그 원인은 노력, 교육, 또는 경험이라고 응답하는 결과가 나타났다(Lockhart et al., 2008). 일본인과 미국인을 대상으로 실체적 또는 증진적 믿음을 갖도록 조작한 Heine 등(2001)의 연구 결과는 이러한 문화적 차이에 대해 명확하게 보여준다. 특정 과제에서 실패한 후, 그 과제에서는 좀 더 노력이 요구된다는 설명을 제시하면, 이후에 미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보다 그 과제를 계속해서 실시하려는 경향을 좀 더 보였다. 일본 문화에서는 ‘노력’을 기본적으로 과제 수행의 자질이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미국 문화에서는 상대적으로 ‘선천적인 능력’을 과제 수행의 자질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노력’의 중요성을 역설했을 때 ‘노력’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았던 미국 문화의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보다 더 영향을 받아 과제를 더 지속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일본 사람들의 생각과 문화에 노력을 통해 변화할 수 있다는 믿음이 중요하게 위치하고 있다는 점(Heine, 2005; Holloway, 1988)과 한국이 일본과 비슷한 문화를 가진다는 것을 감안할 때, 한국 사람들도 사람들의 심리적 특질이 변화할 수 있다는 증진적 관점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연구 문제 2. 한국 대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특질에 대한 믿음은 개념적 정합성(coherence)을 가지는가?

사람들이 심리적 특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믿음에는 다양한 개념적 차원들이 존재한다. 불변성(inalterability), 지속성(consistency)과 같은 차원(Haslam et al., 2004; Keil, 1989; Rothbart & Taylor, 1992)이 있는가 하면, ‘뇌에 차이가 존재하는가(brain)’, ‘피 속에도 차이가 존재하는가(blood)’와 같은 생물학적인 것에 바탕을 둔 차원들(Gelman, 2003; Gottfried, Gelman, & Schultz, 1999)도 존재한다. 이런 차원들 간의 상관관계는 심리적 특질에 대한 개념이 정합적인지 여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 있다. 개인의 심리적 특질에 대한 믿음이 정합적인 개념으로 존재한다면, 이러한 차원들 간에 높은 정적 상관이 존재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특정 심리적 특질의 차이가 피 속에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불변하고 지속적일 것이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어야 한다(Gelman et al., 2007). 이전 연구들의 대부분에서 대학생들은 심리적 특질의 본질에 대한 믿

음이 정합성을 가진 개념의 형태로 존재한다는 것을 보이며(Haslam et al., 2004; Haslam, Rothschild, & Ernst, 2000), 만 9세가 되면 심리적 특질에 대한 믿음의 다양한 차원 간에 정합성을 보이기 시작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Gelman et al., 200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 대학생들이 사람의 심리적 특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믿음도 일종의 이론처럼 정합성을 지닌 개념으로 구조화될 수 있는지 보고자 한다.

연구 문제 3. 심리적 특질 유형에 따라 특질의 본질에 대한 믿음 양상이 달라지는가?

지능(intelligence)과 같은 특질은 이전의 많은 연구들에서 다른 특질들에 비해 더 안정적이고 선천적인 것이라고 사람들이 믿고 있음을 보여주었다(Dweck, Chiu, & Hong, 1995; Gelman et al., 2007; Haslam et al., 2004). 또한 ‘말 많은(talkative), 독립적(independent), 창의적(creative), 상상력(imagination)’과 같은 심리적 특질들은 다른 특질들보다 더 본질적인 특질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다고 한다(Haslam et al., 2004). 이렇게 심리적 특질이라는 범주 안에서도 상대적으로 더 안정적, 더 비가변적이라고 여겨지는 특질들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심리적 특질들은 공통적으로 몇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특질(desirable)이거나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특질(prevalent)일수록, 그리고 사람의 정체성을 정의할 때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의 중심적인 성격 특질(centrality)이거나, 그 사람을 남에게 소개할 때 꼭 언급하는 대표적인 특질(communicability)일수록 좀

더 안정적이고, 변화하지 않는 특질이라고 간주되는 경향성이 있다(Haslam et al., 2004). 만일 한국 대학생들이 좀 더 안정적이라고 믿는 심리적 특질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특질이거나,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특질이거나, 정체성을 나타낼 때 중심적인 특질이거나, 꼭 언급되어야 하는 특질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연구 2에서 부가적으로 검증해 보고자 한다.

II. 연구 1

연구 1은 한국 대학생들이 사람의 심리적 특질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믿음을 검증하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 연구를 실시하였다.

1. 연구방법

연구대상

대학생(평균: 20.5세, 범위: 17.93세-31.87세) 총 100명(남자 41명, 여자 59명)이 설문에 참가하였다. 연구 참가자들은 서울 지역의 Y 대학교에서 심리학 관련 수업을 듣는 수강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참가자들에게는 보상으로 연구 참가 점수를 부여하였다.

설문도구

설문에 사용된 질문들은 이전 최유정과 송현주(2008)에서 사용된 것과 동일한 것으로서, Haslam과 그의 동료들(2004)이 사용한 40개의 성격 특질 중 서양인들이 주로 실체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10개를 선택하여 한국어에 맞게 번역한 것이다. 이 특질들은 총 10개의 심리적 특질에 대하여 구성되었으며, 10개의 심리적 특질은 긍정적 특질 5개와 부정적 특질 5개로 이루어졌다. 본 논문에서 사용된 특질 쌍들은 ‘똑똑한/ 공부 못 하는’, ‘쉽게 만족하는/ 걱정 많은’, ‘온순한/ 고집 센’, ‘씩씩한/ 수줍음을 타는’, ‘정리정돈 잘 하는/ 덩벙거리는’이었다.

각각의 심리적 특질에 대해 5개의 차원에 대한 질문이 구성되었는데, 이것 역시 이전 연구(최유정, 송현주, 2008)에서 사용된 것과 동일한 것으로서, 각 차원들은 Gelman과 동료들(2007)이 사용한 차원 9개 중에서 다른 차원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실체적 관점을 나타낸 5개의 차원들이 선정되었다. 이 차원들은 뇌 차이(뇌에 차이가 존재하는가), 출생(타고 태어나는가), 지속(지속적인가), 변화(변화하는가), 환경(환경의 영향을 받는가)이었다. 예 (가)-(마)는 ‘똑똑한’이란 특질에 대해 각 차원에 해당하는 질문을 보여주고 있다. 참가자들은 각 문항에 대해 6점 척도 상에 응답을 표기하였고, 예 (가)-(마)가 보여주듯이 차원에 따라 1점과 6점의 내용이 다소 달라졌다. 응답 분석 시, 변화와 환경 차원에 대한 응답은 역부호화(reverse coding)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에서 응답 점수가 높을수록 (6점에 근접할수록) 특질을 더 타고나는 것이거나 안정적인 것으로 생각함을 의미한다.

(가) 뇌 차이 - 똑똑한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의 뇌가 다를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1= 전혀 차이가 없을 것이다, 6=

매우 큰 차이가 있을 것이다)

(나) 출생 - 똑똑한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결정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절대 그렇지 않다, 6= 확실히 그렇다)

(다) 지속 - 5세에 똑똑한 아이들은 40세가 되어서도 여전히 똑똑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절대 그렇지 않다, 6= 확실히 그렇다)

(라) 변화 - 똑똑한 지 그렇지 않은 지는 아이들이 원하면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결코 바꿀 수 없을 것이다, 6= 충분히 바꿀 수 있다)

(마) 환경 - 아이들이 똑똑한 지 그렇지 않은 지에 환경이 얼마나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6= 매우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연구절차

참가자들은 연구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듣고 난 후 연구 참여 동의서와 50개의 문항(10개의 성격 특질 x 5개의 믿음 차원)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설문지 내 문항들은 차원에 따라 묶여 배열되었고, 각 차원 내에서의 각 특질에 대한 문항은 무선 배열되었다. 설문지 내 차원의 순서도 무선화 되었다. 또한 문항들을 역순으로 배열한 설문지를 추가하여 순서 효과를 방지하였다.

2. 결과 및 논의

한국 대학생들은 심리적 특질에 대해 어떤 관점을 가지는가? 표 1은 각 심리적 특

질과 각 차원에 대한 점수의 평균을 보여준다. 전체 평균값은 2.97점으로 연구에서 6점 척도를 사용하였음을 감안할 때, 낮은 점수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척도의 중간 점수(3.5점)를 기준 점수로 정해 단일 표본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전체 평균은 중간 점수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다($t(99) = -8.403$, $p < .001$). 각각의 값 중에서 중간 점수(3.5점)를 넘는 것은 ‘뇌 차이-똑똑한($M = 3.90$)’, ‘지속-정리정돈 잘 하는($M = 3.84$)’, ‘지속-고집 센($M = 3.72$)’, ‘변화-똑똑한($M = 3.62$)’, ‘변화-고집 센($M = 3.60$)’, ‘뇌-공부 못 하는($M = 3.53$)’, 그리고 ‘환경-덤벙거리는($M = 3.53$)’ 총 일곱 가지였다. 그러나 이 중에서 단일 표본 t -검정 결과 중간 점수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획득한 것은 ‘뇌-똑똑한($t(99) = 2.936$, $p < .01$)’과 ‘지속-정리정돈 잘 하는($t(99) = 2.458$, $p < .05$)’ 뿐이었고, 나머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지속-고집 센($t(99) = 1.659$, $p > .05$)’, ‘변화-똑똑한($t(99) < 1$)’, ‘변화-고집 센($t(99) < 1$)’, ‘뇌-공부 못 하는($t(99) < 1$)’, ‘환경-덤벙거리는($t(99) < 1$)’. 그리고 대부분의 값들은 중간 점수(3.5점)보다 유의미하게 낮았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한국 대학생들이 사람의 심리적 특질이 생물학적인 것에 적게 기반을 두고 덜 안정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증진적 관점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한국 대학생들의 심리적 특질에 대한 믿음은 개념적 정합성(coherence)을 가지는가? 대학생들이 심리적 특질에 대해 가지고 있는 믿음이 개념적 정합성을 가지는 지 살펴보기

표 1. 연구 1(대학생), 각 심리적 특질과 믿음 차원 점수의 평균 값 (N = 100)

	지속	뇌 차이	출생	변화 ^a	환경 ^a	평균	표준편차
똑똑한	3.03**	3.90**	3.44	3.62	2.85**	3.37	0.43
공부 못 하는	2.03**	3.53	2.69**	2.53**	2.14**	2.58	0.59
쉽게 만족하는	3.08**	3.08**	2.67**	3.28	2.64**	2.95	0.28
걱정 많은	3.23*	3.13**	2.50**	3.35	2.59**	2.96	0.39
썩썩한	2.85**	2.84**	2.60**	2.82**	2.35**	2.69	0.22
수줍음을 타는	2.80**	2.96**	3.87**	2.93**	2.77**	2.87	0.08
온순한	3.17	3.13**	3.21*	3.16*	2.68**	3.07	0.22
고집 센	3.72	2.94**	2.92**	3.60	3.14**	3.26	0.37
정리정돈 잘 하는	3.84*	2.92**	2.38**	2.61**	2.88**	2.93	0.56
덤벙거리는	3.18*	3.06**	2.58**	2.96**	3.53	3.07	0.34
평균	3.09	3.15	2.79	3.09	2.76	2.97	
표준편차	0.50	0.32	0.33	0.38	0.39		

주. 진하게 표시된 점수는 중간 점수 (3.5점)보다 높은 점수를 가리킴.

이탤릭으로 표시된 점수는 중간 점수(3.5점)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음.

*p < .05 (2-tailed), **p < .01 (2-tailed)

^a차원은 역점수화 하였음.

표 2. 연구 1(대학생), 각 믿음 차원간의 상관관계 (N = 100)

	지속	뇌 차이	출생	변화 ^a	환경 ^a
지속	1	.33**	.58**	.28**	.37**
뇌 차이		1	.42**	.20*	.09
출생			1	.48**	.43**
변화				1	.56**
환경					1

위해 Pearson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10개의 상관 점수 중 10개의 점수가 정적 상관을 보였고, 이 중 9개가 정적으로 유의미한 통계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대학생들의 심리적 특질에 대한 믿음이 높은

정합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심리적 특질 유형 및 차원에 따라 특질의 본질에 대한 믿음 양상이 달라지는가?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사람의 심리적 특질의 본질

에 대한 믿음 정도가 특질 및 차원의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지 보기 위해, 10(특질) $\times$ 5(차원) 반복 분산 분석을 실시하였다. 유의미한 특질의 주효과가 나타났는데($F(9, 891) = 19.028, p < .001, \text{partial } \eta^2 = .161$), 이것은 한국 대학생들이 심리적 특질 유형에 따라 다른 반응을 보였음을 의미한다. 설문에서 사용된 특질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은 ‘똑똑한($M = 3.37$)’이고, 그 다음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특질은 ‘고집 센($M = 3.26$)’이었다. 또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은 ‘공부 못 하는($M = 2.58$)’ 특질이었다. Bonferroni 검사 결과, ‘똑똑한’ 특질은 ‘고집 센’ 특질을 제외한 다른 특질들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p < .05$). 또한 ‘공부 못 하는’은 ‘수줍음을 타는’과 ‘씩씩한’과는 차이가 없었지만, 다른 모든 특질보다는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다($p < .05$). 이것은 한국 대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똑똑하다는 특질과 고집이 세다는 특질은 변화할 가능성이 적고 생물학적인 것에 기반을 두지만, 공부를 못 하는 특질이나 수줍음을 타고 쑥스러하다는 특질은 상대적으로 변화할 여지가 크고,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차원의 주효과도 유의미하게 나타나 대학생들이 차원에 따라서 다르게 응답함을 보였다($F(4, 396) = 6.949, p < .001, \text{partial } \eta^2 = .066$). 대학생들은 차원 ‘뇌 차이($M = 3.15$)’에 대해 질문했을 때, 점수가 가장 높았다. 그 다음은 차원 ‘지속($M = 3.09$)’, ‘변화($M = 3.09$)’, ‘출생($M = 2.79$)’ 순이었고,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차원은 ‘환경($M = 2.76$)’이었다. Bonferroni 검사 결과, 차원 ‘뇌 차이’의 평균은 ‘지속’과

‘변화’의 평균들과는 차이가 없었지만, ‘출생’과 ‘환경’의 평균보다는 유의미하게 높았다($p < .005$). 또한 차원 ‘환경’의 평균은 ‘출생’의 평균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지만, 다른 차원들의 평균들보다는 유의미하게 낮았다($p < .005$). 이것은 한국 대학생들이 심리적 특질들이 뇌에 차이에서 기인할 수 있고, 지속적이며,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출생 시에 차이가 있고, 환경의 영향을 적게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보다 높음을 의미한다.

특질과 차원의 상호작용 효과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F(36, 3564) = 15.185, p < .001, \text{partial } \eta^2 = .133$). 이것은 대학생들이 심리적 특질 유형과 믿음 차원 각각에 대하여 다르게 생각하고 응답하였음을 의미한다.

요약

한국 대학생들이 사람의 심리적 특질에 대해 가지고 있는 믿음은 특질이 변화할 수 있다는 증진적 관점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믿음 차원 간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대학생들의 심리적 특질에 대한 믿음은 정합성을 가진 개념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학생들의 사람의 심리적 특질 중에서 ‘똑똑한’, ‘고집 센’을 다른 특질보다 더 생물학적인 것에 바탕을 둔 안정적인 특질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반대로 ‘공부 못 하는’, ‘수줍음을 타는’, 그리고 ‘씩씩한’은 다른 특질보다 더 변화될 수 있고 환경의 영향을 받는 특질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차원에 따라서도 대학생들은 다르게 응답을 하였는데, 차원 ‘뇌 차이’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차원 ‘환경’은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III. 연구 2

연구 2는 연구 1의 결과를 반복 검증하고자 실시되었다. 연구 2에서는 두 가지 연구 방법상의 변화가 있었다. 첫째, 신체적 특질에 대한 믿음을 묻는 통제 질문을 삽입하였다. 한국 대학생들은 심리적 특질이 변화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연구 1의 결과에 대한 대안적 설명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연구 1의 결과는 응답자들이 특질의 종류에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사람은 변화한다고 응답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전 연구에서 대학생들은 ‘시력이 나쁜(poor vision), 달리기를 못하는(slow runner)’과 같은 신체적 특질들에 대해서 변화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나타났다(Lockhart et al., 2008). 따라서 본 연구 2에서는 신체적 특질에 대한 질문을 추가해서 진행함으로써, 한국 대학생들이 심리적 특질의 본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믿음을 더 명확하게 밝히고자 하였다.

부가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심리적 특질 중에서 상대적으로 변하지 않고 환경의 영향을 덜 받는다고 나타난 특질들이 다른 특질들과 어떠한 점에서 차이가 나는 지를 알아보고자 했다. 이전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고(바람직성: desirable), 많은 사람들이 공

유하는 일반적 특질(일반성: prevalent)이며, 개인의 정체성에 있어 중심이 되는 부분이고(중심성: centrality),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 꼭 언급하는 특질(언급성: communicability)일수록 더 안정적이고 환경이나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심리적 특질이라고 한다(Haslam et al., 2004). 이 연구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도 심리적 특질이 안정적이라고 여겨질수록 더 바람직성, 일반성, 중심성, 언급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지 그 관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1. 연구방법

연구대상

서울 지역의 Y 대학교에서 심리학 교양 혹은 전공과정을 수강하는 학부생 101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이 중 한 문항 이상 응답이 빠져있는 설문지 1개는 분석에서 제외되어 총 학부생(평균: 만 22.14세, 범위: 만 18.63세-29.23세) 100명(남자 38명, 여자 63명)의 자료가 분석에 포함되었다. 보상으로 참가자들에게는 연구 참가 점수를 부여하였다.

설문도구

설문에 사용된 질문들은 연구 1에서 사용된 심리적 특질 중 3개를 변화시켜서 사용하였다. ‘온순한’이라는 특질은 ‘마음이 따뜻한’으로, ‘고집 센’이라는 특질은 ‘냉정한’으로, ‘공부 못 하는’은 ‘우둔한’으로 변화시켰다. 이 심리적 특질들 모두 이전 연구에서 다른 특질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불변하고 환경의 영향을 적게 받는 특질들로 나타났다(Haslam et al., 2004). 따라서 본 연구에 사용된 심리적 특질

쌍들은 ‘똑똑한/ 우둔한’, ‘쉽게 만족하는/ 걱정 많은’, ‘마음이 따뜻한/ 냉정한’, ‘씩씩한/ 수줍음을 타는’, ‘정리정돈 잘 하는/ 덩벙거리는’이었다. 이러한 심리적 특질에 더하여 통제 조건으로서 ‘입이 큰’, ‘색맹인’, ‘왼손잡이인’, 그리고 ‘달리기를 잘 하는’이라는 4개의 신체적 특질이 추가되었다.

연구에서 사용한 차원들은 모두 9개로 이는 앞서 사용된 것과 동일한 믿음 차원들 5개, 뇌 차이, 출생, 지속, 변화, 환경(Gelman et al., 2007)과 안정된 특질과 정적 상관이 있다고 나타난 바람직성, 일반성, 중심성, 언급성(Haslam et al., 2004)의 차원 4개로 이루어졌다. 참가자들은 6점 척도 상에 응답을 표기하였고, 이전 연구와 동일하게 변화, 환경 차원에 대한 응답은 역부호화(reverse coding)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에서 뇌 차이, 출생, 지속, 변화, 환경과 같은 믿음 차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 점수가 높을수록(6 점에 근접할수록) 특질이 안정적이고 생물학적인 것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생각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바람직성, 일반성, 중심성, 언급성 차원에 대한 질문에서는 점수가 높을수록 각 질문에 해당하는 특성을 높게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가) 바람직성 - ‘똑똑한’이라는 특질이 얼마나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6 = 매우 바람직하다.)

(나) 일반성 - ‘똑똑한’이라는 성격 특질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 극소수 사람

들 설명 가능, 6 = 대부분의 사람들 설명 가능)

(다) 중심성 - ‘똑똑한’이라는 특질은 사람들의 성격에 중요한 측면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특질을 가지고 있다면, 이 특질은 당신이 누구인지를 말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문장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1 = 거의 동의하지 않는다, 6 = 매우 동의한다.)

(라) 언급성 - 만약 어떤 사람이 ‘똑똑한’이라는 성격 특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 그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경우 그 특질을 어느 정도로 언급할 것입니까? (1 = 거의 언급하지 않을 것이다, 6 = 꼭 언급할 것이다.)

연구 절차

연구 1과 동일하였다.

2. 결과 및 논의

한국 대학생들의 심리적 특질에 대한 믿음은 재검증될 수 있는가?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 대학생들이 사람의 각 심리적 특질과 각 차원에 대한 점수의 전체 평균값은 2.94점으로, 연구 1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 값은 또한 연구 1과 마찬가지로 기준 점수인 중간 점수(3.5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다($t(99) = -9.519, p < .001$). 네 개의 값(‘뇌 차이-똑똑한’, ‘지속-정리정돈 잘 하는’, ‘변화-우둔한’, ‘뇌 차이-우둔한’) 만이 중간 점수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 중 중간 점수(3.5점)보다 통계

표 3. 연구 2(대학생), 각 심리적 특질과 믿음 차원 점수의 평균 값 (N = 100)

	지속	뇌 차이	출생	변화 ^a	환경 ^a	평균	표준편차
똑똑한	3.10**	4.25**	3.46	3.32	2.77**	3.38	0.49
우둔한	2.73**	3.62	3.06**	3.70	3.34**	3.29	0.36
쉽게 만족하는	3.09**	3.20*	2.49**	3.31	2.60**	2.94	0.33
걱정 많은	3.14*	3.21**	2.43**	3.27	2.44**	2.90	0.38
씩씩한	3.16*	2.74**	2.32**	2.68**	2.34**	2.65	0.31
수줍음을 타는	2.86**	2.96**	2.79**	2.63**	2.24**	2.70	0.25
마음이 따뜻한	3.19*	2.95**	2.33**	3.33	2.22**	2.80	0.45
냉정한	2.91**	3.16**	2.38**	3.16*	2.56**	2.83	0.32
정리정돈 잘 하는	3.72	3.04**	2.28**	2.49**	2.64**	2.83	0.51
덤벙거리는	3.14**	3.13**	2.58**	3.08**	3.24*	3.03	0.23
평균	3.10	3.23	2.61	3.10	2.64	2.94	0.26
표준편차	0.25	0.40	0.36	0.36	0.37	0.23	

주. 진하게 표시된 점수는 중간 점수 (3.5점)보다 높은 점수를 가리킴.

이탤릭으로 표시된 점수는 중간 점수(3.5점)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음.

* $p < .05$ (2-tailed), ** $p < .01$ (2-tailed)

^a차원은 역점수화 하였음.

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획득한 값은 ‘뇌 차이-똑똑한($\mu_{99} = 4.250, p < .001$)’뿐이었고, 이것은 연구 1의 결과와 비슷한 것이다. 이를 통해 한국 대학생들은 일반적으로 심리적 특질이 생물학적인 것에 덜 바탕을 두고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증진적 관점과 유사한 관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다음으로 대학생들이 사람의 심리적 특질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믿음이 개념적 정합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각 차원 점수 간 Pearson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4를 통해 알 수 있듯이 10개의 상관 점수 중 10개의 점수가 정적 상관을 보였고, 이 중

9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이는 연구 1에서 10개의 긍정적인 상관 중에서 9개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던 결과들과 일맥상통한다. 또한 연구 1과 동일하게 ‘뇌 차이’와 ‘환경’ 차원 간의 상관을 제외하고는 다른 모든 상관관계가 정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는 점은 대학생들의 심리적 특질에 대한 믿음이 개념적 정합성을 지닐 뿐만 아니라, 이러한 믿음이 일반적일 수 있음을 암시한다.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심리적 특질의 본질에 대한 믿음 정도가 앞서 진행된 연구 결과와 같이 특질 및 차원의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지 보기 위해, 10(특질) $\times$ 5(차원) 반복 분산 분석

표 4. 연구 2(대학생), 각 믿음 차원간의 상관관계($N = 100$)

	지속	뇌 차이	출생	변화 ^a	환경 ^a
지속	1	.23*	.52**	.22*	.26**
뇌 차이		1	.32**	.26**	.09
출생			1	.45**	.51**
변화				1	.50**
환경					1

주. * $p < .05$ (2-tailed), ** $p < .01$ (2-tailed)

^a차원은 역점수화 하였음.

을 실시하였다. 결과적으로 앞서 진행된 연구들과 동일하게 유의미한 특질의 주효과($F(9, 891) = 27.811, p < .001, \text{partial } \eta^2 = .219$)가 나타났다. 특히, ‘똑똑한($M = 3.38$)’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그 다음으로 높은 점수를 획득한 특질은 ‘우둔한($M = 3.29$)’이었다.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특질은 ‘씩씩한($M = 2.65$)’이고 그 다음은 ‘수줍음을 타는($M = 2.70$)’ 순이었다. Bonferroni 검사 결과, ‘똑똑한’은 ‘우둔한’을 제외한 다른 모든 특질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p < .005$), ‘우둔한’ 또한 ‘똑똑한’을 제외한 다른 모든 특질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p < .005$)¹⁾. 그리고 ‘씩씩한’은 ‘따뜻한’, ‘냉정한’, ‘정리정돈 잘하는’, 그리고 ‘덤벼거리는’과는 차이가 없었지만, 다른 특질보다는 유

의미하게 낮게 나타났다($p < .005$). 이 결과는 참가자들이 똑똑하다는 특질과 우둔하다는 특질은 지속적이고 생물학적인 것에 기반을 두고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썩썩하다, 따뜻하다, 냉정하다, 정리정돈 잘한다는 특질들은 상대적으로 그러할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원의 주효과도 나타났다($F(4, 396) = 16.191, p < .001, \text{partial } \eta^2 = .141$).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차원은 연구 1과 동일하게 ‘뇌 차이($M = 3.23$)’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차원 ‘지속($M = 3.104$)’, ‘변화($M = 3.097$)’, ‘환경($M = 2.64$)’ 순이었고,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차원은 ‘출생($M = 2.61$)’이었다. Bonferroni 검사 결과, 차원 ‘뇌 차이’의 평균은 ‘지속’과 ‘변화’의 평균들과는 차이가 없었지만, ‘출생’과 ‘환경’의 평균보다는 유의미하게 높았다($p < .001$). 또한 차원 ‘출생’의 평균은 ‘환경’의 평균과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지만, 다른 차원들의 평균들보다는 유의미하게 낮았다($p < .001$). 이것은 연구 1의 결과와 상당히 일치되는 것으로서, 참가자들은 심리적 특질들이 상대적으로 환경의 영향을 받

1) 변화시킨 특질 중에서 ‘우둔한’은 연구 1에서 ‘공부 못 하는’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던 데 반해 연구 2에서는 두 번째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를 통해, 예상했던 대로 한국 대학생들이 ‘공부 못 하는’을 지속적으로 가장 낮게 평가했던 이유가 ‘공부 못 하는’을 특질이라기보다는 능력 또는 기술에 가깝게 생각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지 않고, 출생 시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뇌의 차이에서 기인하고, 지속적이며,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신체적인 특질들에 대해서는 한국 대학생들은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심리학적 특질들과 차이가 있는가? 표 5에서 알 수 있듯이 신체적 특질인 ‘입이 큰($M = 4.23$)’, ‘색맹인($M = 4.75$)’, ‘왼손잡이인($M = 4.02$)’, 그리고 ‘달리기를 잘 하는($M = 3.23$)’에 대한 응답들은 심리적 특질에 대한 응답보다 전반적으로 높은 점수를 획득하였다. 연구 1과 2에서 심리적 특질들에 대한 믿음의 전체 평균값이 기준 점수인 중간점수(3.5점)보다 유의미하게 낮았던 데 반해, 신체적 특질의 전체 평균점수($M = 4.06$)는 중간 점수(3.5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t(99) = 10.227, p < .001$). 신체적 특질과 심리적 특질 간의 차이를 명확하게 알기 위해

대응표본 t -검정을 실시한 결과, 신체적 특질들($M = 4.06$)은 심리적 특질들($M = 2.94$)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t(99) = -19.832, p < .001$). 이것은 한국 대학생들이 심리적 특질에 비해 신체적 특질을 더 지속적이고 환경의 영향을 덜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대부분의 값들은 중간점수(3.5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t(99) > 3.0, p < .005$). ‘중간 점수(3.5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은 점수를 획득한 값은 ‘뇌 차이-입이 큰($t(99) = -18.061, p < .001$)’, ‘뇌 차이-달리기를 잘 하는($t(99) = -8.433, p < .001$)’, ‘지속-달리기를 잘 하는($t(99) = -4.643, p < .001$)’, ‘변화-왼손잡이인($t(99) = -2.796, p < .01$)’ 네 개 뿐 이었다.

비록 신체적 특질 중 ‘달리기를 잘 하는($M = 3.23$)’이 중간점수보다 낮은 점수를 획득하였지만, 대부분의 값들은 모두 중간 점수(3.5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한국 대학생들

표 5. 연구 2(대학생), 각 신체적 특질과 믿음 차원 점수의 평균 값 ($N = 100$)

	지속	뇌 차이	출생	변화 ^a	환경 ^a	평균	표준편차
입이 큰	4.49**	1.72**	4.69**	5.01**	5.23**	4.23	1.43
색맹인	5.03**	3.59	4.84**	5.29**	5.02**	4.75	0.67
왼손잡이인	4.21**	4.34**	4.10**	3.08**	4.37**	4.02	0.54
달리기를 잘 하는	2.88**	2.42**	3.42	3.48	3.94**	3.23	0.59
평균	4.15	3.02	4.26	4.22	4.64	4.06	
표준편차	0.91	1.17	0.65	1.10	0.59		

주. 진하게 표시된 점수는 중간 점수 (3.5점)보다 높은 점수를 가리킴.

이탤릭으로 표시된 점수는 중간 점수(3.5점)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음.

* $p < .05$ (2-tailed), ** $p < .01$ (2-tailed)

^a차원은 역점수화 하였음.

이 심리적 특질과 신체적 특질을 다르게 구분하여 응답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한국 대학생들이 심리적 특질을 신체적 특질보다 더 변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연구 1의 결과가 연구 참가자들이 무조건 사람이 변화한다고 응답하는 일반적인 편향에 의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심리적 특질 유형에 따른 믿음의 차이와 관련된 요소들은 무엇인가? 심리적 특질 중에서 더 안정적인 특질들과 더 가변적인 특질들이 가지는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각 특질들의 점수와 바람직성, 일반성, 중심성, 언급성 차원 사이의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한국 대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똑똑한’, ‘우둔한’ 특질들은 이러한 차원들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고, 아래의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특질에서 이 4가지 차원들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특질들과 이 4가지 차원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난 몇 가지 경우는 다음과 같다. 먼저 특질 ‘씩씩한($r = .236, p < .05$)’과 ‘냉정한($r = .199, p < .05$)’이 ‘중심성’ 차원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는 쑥쑥함과 냉정함과 같은 특질의 경우 개인의 정체성에서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될수록, 안정적이고, 선천적인 특질이라고 고려됨을 의미한다. 또한 특질 ‘덤벙거리는($r = .245, p < .05$)’과 특질 ‘정리정돈을 잘 하는($r = .229, p < .05$)’은 ‘일반성’ 차원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것

은 덩벙거리고 정리정돈을 잘 한다는 특질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일반적인 특질이라고 생각될수록 안정적이고 선천적이라고 여겨짐을 의미한다.

요약

연구 2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사람의 심리적 특질에 대한 믿음에 대해 재검증해 보았다. 연구 2의 결과는 한국 대학생이 사람의 심리적 특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믿음이 증진적 관점에 가까운 것이라는 연구 1의 결과를 확증하였다.

또한 신체적인 특질들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선천적인 것에 바탕을 둔다는 믿음이 나타났다, 심리적 특질들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얻었다. 이를 통해, 한국 대학생들이 신체적, 심리적 특질을 구분하여 생각할 뿐만 아니라 심리적 특질에 대해서 신체적인 특질들보다 더 변화할 가능성이 많고 환경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증진적 관점을 가지고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 대학생들이 심리적 특질이 고정되어 있기보다는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선천적인 생물학적 차이도 크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함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한국 대학생들이 사람의 심리적 특질에 대해 가지는 믿음이 증진적 관점에 가까운 것임을 나타낸다. 본 연구 결과는 한국 대학생

들이 증진적 관점을 가질 것이라는 이전 연구(Dweck et al., 1993; Norenzayan, Choi, & Nisbett, 2002)의 제안과 일치하며, 아동의 심리적 특질에 대한 한국 성인의 믿음을 연구한 이전 연구(최유정, 송현주, 2008)와도 일맥상통한다. 또한 같은 동아시아 문화권인 일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자료(Choi et al., 1999; Dweck & Leggett, 1988; Markus & Kitayama, 1991)들과도 유사하다.

이러한 한국 대학생들의 심리적 특질에 대한 믿음은 대학생 집단의 경우, 대체적으로 개념적 정합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서양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자료와도 일관되는 결과이다(Gelman et al., 2007; Haslam et al., 2004; Haslam et al., 2000).

본 연구에서는 ‘똑똑한’, ‘우둔한’, ‘고집 센’이 다른 심리적 특질들보다 좀 더 안정적이고 선천적인 것으로, ‘공부 못 하는’, ‘썩썩한’을 다른 심리적 특질보다 좀 더 가변적이고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특질로 나타났고, 이것은 이들 심리적 특질에 대하여 한국 대학생들이 비슷한 믿음을 공유하고 있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공부 못 하는’ 특질을 ‘우둔한’으로 바꾸어 실시한 연구 2에서 ‘우둔한’이 ‘똑똑한’ 만큼 변화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타난 점을 미루어, ‘공부 못 하는’이라는 특질은 기술이나 능력에 가깝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한국 대학생들은 차원 ‘환경’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낮은 점수를 부여하였다. 이것은 사람들의 특질에 ‘환경’이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한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보다 더 환경적 요소에 민감하다는 이전 연구(Norenzayan et al., 2002)와 일치한다.

1. 심리적 특질 유형에 따른 믿음 차이

심리적 특질 유형에 따라 한국 대학생들이 심리적 특질 본질에 대한 믿음이 달라짐이 나타났다. ‘똑똑한’, ‘우둔한’, ‘고집 센’은 다른 심리적 특질보다 생물학적인 것에 기반을 둔 비 가변적인 특질이라고 생각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반대로 ‘공부 못 하는’, ‘썩썩한’, ‘수줍음을 타는’이라는 특질들은 다른 심리적 특질보다 훨씬 더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가변적인 특질이라고 생각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아동의 심리적 특질에 대한 한국 성인의 믿음에 대한 결과와도 거의 일치하는 것이다(최유정, 송현주, 2008). 특히 ‘똑똑한’이 다른 심리적 특질들에 비해 더 변화하지 않는 안정적인 특질이라는 결과는 이전 연구들에서도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Dweck et al., 1995; Gelman et al., 2007; Haslam et al., 2004).

부가적으로 연구 2에서는 이러한 심리적 특질 간의 차이의 원천을 검증하기 위해 특질의 안정성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진 차원인 바람직성, 일반성, 중심성, 언급성(Haslam et al., 2004)에 대해서 검증해 보았다. 이와 같은 4개의 차원이 안정적이고 선천적이라고 여겨지는 특질들과 모두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던 이전 연구(Haslam et al., 2004)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똑똑한’, ‘우둔한’ 등의 특질들이 다른 특질에 비해 좀 더 안정적이고 선천적이라고 생각되는 특질임에도 불구하고, 이 4개의 차원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고, 대

부분의 특질들이 이 차원들과 유의미한 상관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먼저, 이 차이의 원인을 바닥효과(floor effect)에서 찾을 수 있다. 심리적 특질에 대한 참가자들의 응답 대부분이 낮은 점수대(1-3점)에 집중되어 있어 상관관계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았을 수 있다. 하지만 사용된 4개의 차원 이외의 다른 차원이 더 한국 대학생들의 심리적 특질에 대한 믿음과 상관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가적인 자료를 통하여 더 명확하게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2. 사람들이 믿는 안정적인 특질과 실제로 안정적인 특질의 차이

본 연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특질에 대한 믿음을 검증해보았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변화하지 않은 특질과 실제로 변화하지 않는 특질 간에는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특질들은 성격의 다섯 요인 이론(big five)에서 나타난 심리적 특질의 다섯 차원 - 개방성(Openness to experience), 성실성(Conscientiousness), 외향성(Extraversion), 원만성(Agreeableness), 신경증(Neuroticism) - 각각에서 긍정 특질 1개와 부정 특질 1개를 뽑아 5개의 쌍으로 이루어져 있다. 심리적 특질의 안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실시된 몇 가지 장기 종단 연구에 따르면, 심리적 특질들은 태어날 때부터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이른 성인기까지 의미 있는 변화를 지속적으로 한다고 한다(Haan, Millsap, & Hartka, 1986; McGue, Bacon, & Lykken, 1993; Watson & Walker, 1996). 어떤 연구자는 이러한 변화가 30세 이상이 되면

안정된다고 하고(McCrae & Costa, 1997), 다른 연구자는 50세(Caspi, Roberts, & Shiner, 2005), 또 다른 연구자는 적어도 60세(Roberts & DelVecchio, 2000)는 지나야 심리적 특질들이 안정적이어서 변화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심리적 특질들 가운데서도 실제 종단 연구를 통해 측정해 본 결과, 특질 차원마다 안정성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한다(Conley, 1985; Haan et al., 1986; Robins, Fraley, Roberts, & Trzesniewski, 2001). 50년간 이른 아동기에서 늦은 성인기까지를 종단 연구한 결과(Haan et al., 1986)와, 19년간 18-65세에 해당하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연구 결과(Conley, 1985)에 따르면, 본 연구에서 사용된 특질 중 ‘똑똑한’과 ‘씩씩한’은 다른 특질들에 비해 실제로 더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격의 다섯 요인(big five)을 사용해서 성인기 초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4년 뒤에 특질의 안정성을 측정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본 연구의 ‘똑똑한’, ‘우둔한’에 해당하는 ‘개방성’ 차원의 특질들은 가장 일관적으로, 반면 ‘고집 센, 온순한, 따뜻한, 냉정한’에 해당하는 ‘원만성’과 ‘걱정 많은, 쉽게 만족하는’에 해당하는 ‘신경증’은 상대적으로 더 가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Robins et al., 2001).

종단 연구들에서 공통되게 나타나는 결과는 ‘똑똑한’이 가장 안정적인 특질이라는 것으로, 이것은 본 연구에서 한국 대학생들이 가진 믿음과 일치한다. 흥미로운 점은 한국 대학생들이 변화할 가능성이 높고 환경의 영향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씩씩한’이라는 특질이 이전 연구들에 따르면 실제로는 안정적이라는 점이

다(Conley, 1985; Hann et al., 1986). 이렇게 사람들이 가진 일반적인 믿음과 실제의 결과는 차이가 나는데, 무엇이 이러한 믿음과 실제의 차이를 유발하는지, 그리고 실제와 다른 믿음을 가지는 것이 개인적, 사회적으로 어떠한 의의나 이점이 있는 지를 밝히는 것은 흥미로울 것이라고 기대한다.

3. 증진적 관점의 근원: 문화 차

서양에서 이루어진 심리적 특질의 본질에 대한 연구들에서 사람들은 심리적 특질이 전반적으로 변화하지 않는다는 실체적 또는 본질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Gelman et al., 2007; Haslam et al., 2004; Lockhart et al., 2002; Lockhart et al., 2008). 그렇지만 본 연구의 한국 대학생들의 심리적 특질에 대한 믿음은 증진적 관점에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심리적 특질에 대한 관점에 있어서의 문화 차를 암시한다.

사회를 구성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문화에 따라 그 구성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다고 한다(Su et al., 1999). 사회를 구성하는 것을 돌 벽을 쌓는 것이라고 가정해 보자. 우선, 적당한 돌을 골라 그 돌을 적당한 위치에 놓음으로써 예상했던 설계도와는 다르지만 돌 하나하나의 모양을 유지하는 벽을 쌓을 수 있다. 두 번째는 쌓기 전에 돌을 고르고 깎아서 설계도에 맞게 돌 벽을 쌓아올릴 수 있다. 비교문화 연구에서는 전자는 서양 사람들의 사회를 구성하는 관점과 가장 들어맞고, 후자는 한국과 같은 동양 사람들의 관점과 잘 들어맞는다고 한다(Su et al., 1999). 같

은 맥락으로 서양 사람들은 돌의 모양을 유지하듯이 자신(self)이 사회보다 불변하는 독특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반면, 동양 사람들은 돌을 깎아 벽 모양에 맞추듯이 자신이 사회보다 더 변화할 수 있고 유연한 존재이며, 사회적 역할, 책임, 그리고 관계에 맞추어 자신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Markus & Kitayama, 1991; Su et al., 1999; Triandis, 1989). 중국 학생들이 미국 학생들보다 더 사회적 세계(the social world)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고, 개인적 자질(personal qualities)이 더 유동적이라고 생각했던 이전 연구 결과(Chiu & Hong, 1997)는 이러한 생각을 지지한다. 또한 일본과 미국의 대학생들에게 환경에 자신을 맞추거나 환경을 자신에 맞게 변화시킨 경험을 회상하게 했을 때, 미국 학생들이 환경을 자신에 맞추어 변화시켰던 경험을 더 많이 보고했던 반면, 일본 학생들은 스스로를 환경에 맞추어 적응시켰던 경험을 더 많이 보고하였다는 결과(Morling, Kitayama, & Miyamoto, 2002) 역시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단순히 세상에 대한 개인의 관점의 문화 차를 넘어서 관점에 따라 문화적으로 일상생활에서도 다른 경험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세상에 맞춰 자신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사회와 개인의 요구에 맞춰 성격 특질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 것이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더 적응적일 것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화적 차이가 본 연구에서 밝혀진 한국 대학생들의 특질이 가변적이고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것이라고 믿는 경향성의 가능한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 후속연구

본 연구의 결과를 확장하기 위해 후속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13개의 특질 이외의 다양한 특질에 대한 믿음 양상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특질에 대한 믿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령, 사회 경제적 지위(socioeconomic status), 학업성취와 같은 외생변수와의 관계를 알아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라고 생각 한다. 또한 이러한 심리적 특질의 본질에 대한 믿음이 아동기에서 성인기 사이에 어떻게 발달하는지 (Gelman et al., 2007), 동일한 성인기 안에서도 어떠한 변화 양상을 나타내는 지 알아보는 것은 흥미로울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특질에 대한 믿음 발달에 문화 차이가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나아가 동일한 문화 안에서도 어떤 사람이 증진적인 믿음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실체적 믿음을 가지는지와 같은 개인차에 대해서 구체적인 향후 연구가 필요하리라 본다.

본 연구는 사람의 심리적 특질에 대해서 한국 대학생들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지 알아보았다. 한국 대학생들은 심리적 특질이 선천적이기 보다는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고, 안정적이기 보다는 가변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본 연구는 사람의 심리적 특질의 본질에 대한 한국 대학생의 믿음을 검증하고 일반화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 연구로서, 앞으로 진행될 많은 연구들의 기본적 토대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참고문헌

- 최유정, 송현주 (2008). 아동 특질의 본질에 대한 한국 성인의 믿음.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7, 281-301.
- Cain, K. M., & Dweck, C. S. (1995). The relation between motivational patterns and achievement cognitions through the elementary school years. *Merrill-Palmer Quarterly*, 41, 25-52.
- Caspi, A., Roberts, B. W., & Shiner, R. L. (2005). Personality development: Stability and change.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6, 453-484.
- Chiu, C., & Hong, Y. (1997). [Implicit theories and cultural variations in social cognition]. Unpublished data. In T. R. Tyler, R. Kramer, & O. John (Eds.), *The psychology of the social self* (pp.197). Mahwah, NJ: Erlbaum.
- Choi, I., Nisbett, R. E., & Norenzayan, A. (1999). Causal attribution across cultures: Variation and universality. *Psychological Bulletin*, 125, 47-63.
- Conley, J. J. (1985). Longitudinal stability of personality traits: A multitrait-multimethod-multioccasion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9, 1266-1282.
- Demoulin, S., Leyens, J. -P., & Yzerbyt, V. (2006). Lay theories of essentialism. *Group Processes and Intergroup Relations*, 9, 25-42.
- Dweck, C. S., Chiu, C., & Hong, Y. (1995). Implicit theories and their role in judgments and reactions: A world from two perspectives. *Psychological Inquiry*, 6, 267-285.
- Dweck, C. S., Hong, Y., & Chiu, C. (1993).

- Implicit theories: Individual differences in the likelihood and meaning of dispositional inferenc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9, 644-656.
- Dweck, C. S., & Leggett, E. L. (1988). A social-cognitive approach to motivation and personality. *Psychological Review*, 95, 256-273.
- Erdley, C., Cain, K., Loomis, C., Dumas-Hines, F., & Dweck, C. S. (1997). The relations among children's social goals, implicit personality theories and responses to social failure. *Developmental Psychology*, 33, 263-272.
- Erdley, C., & Dweck, C. S. (1993). Children's implicit personality theories as predictors of their social judgements. *Child Development*, 64, 863-878.
- Gelman, S. A. (2003). *The Essential Child. Origins of Essentialism in Everyday Though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Gelman, S. A., Heyman, G. D., & Legare, C. H. (2007). Developmental changes in the coherence of essentialist beliefs about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Child Development*, 78, 757-774.
- Gottfried, G. M., Gelman, S. A., & Schultz, J. (1999). Children's understanding of the brain: From early essentialism to biological theory. *Cognitive Development*, 14, 147-174.
- Haan, N., Millsap, R., & Hartka, E. (1986). As time goes by: Change and stability in personality over fifty years. *Psychology and aging*, 1, 220-232.
- Haslam, N., Bastian, B., & Bissett, M. (2004). Essentialist beliefs about personality and their implic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0, 1661-1673.
- Haslam, N., Rothschild, L., & Ernst, D. (2000). Essentialist beliefs about social categories.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9, 113-127.
- Heine, S. J. (2005). Where is the evidence for pancultural self-enhancement?: A reply to Sedikides, Gaertner, and Toguchi (2003).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9, 531-538.
- Heine S. J., Kitayama, S., Lehman, D., Tkata, T., Ide, E., Leung, C., et al. (2001). Divergent consequences of success and failure in Japan and North America: An investigation of self-improving motivations and malleable selv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1, 599-615.
- Henderson, V., & Dweck, C. S. (1990). Motivation and achievement. In S. S. Feldman & G. R. Elliott (Eds.), *At the threshold: The developing adolescent*(pp.308-329).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Heyman, G. D., & Dweck, C. S. (1998). Children's thinking about traits: Implications for judgments of the self and others. *Child Development*, 64, 391-403.
- Heyman, G. D. & Gelman, S. A., (1999). The use of trait labels in making psychological inferences. *Child Development* 70, 604 - 619.
- Holloway, S. D. (1988). Concepts of ability and effort i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58, 327-345.

- Keil, F. C. (1989). *Concepts, kinds, and cognitive development*, Cambridge, MA.: MIT Press.
- Lockhart, K. L., Chang, B., & Story, T. (2002). Young children's beliefs about the stability of traits: Protective optimism. *Child Development*, 73, 1408-1430.
- Lockhart K. L., Nakashima, N., Inagaki, K., and Keil, F. C. (2008). From ugly duckling to swan? Japanese and American beliefs about the stability and origins of traits. *Cognitive Development*, 23, 155-179.
- Markus, H. R., & Kitayama, S. (1991). Culture and the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 224-253.
- McCrae, R. R., Costa P. T. Jr. (1997). Longitudinal stability of adult personality. In R. Hogan, J. Johnson, & S. Briggs (Eds.), *Personality Psychology*(pp.269-292). San Diego: Academic.
- McGue, M., Bacon, S., & Lykken, D. T. (1993). Personality stability and change in early adulthood: A behavioral genetic analysis. *Developmental Psychology*, 29, 96-109.
- Morling, B., Kitayama, S., & Miyamoto, Y. (2002). Cultural Practices Emphasize Influence in the United States and Adjustment in Japa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8, 311-323.
- Norenzayan, A., Choi, I., & Nisbett, R. E. (2002). Cultural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social inference: evidence from behavioral predictions and lay theories of behavior.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8, 109-120.
- Roberts B. W., & DelVecchio, W. F. (2000). The rank-order consistency of personality traits from childhood to old age: a quantitative review of longitudinal studies. *Psychological Bulletin*, 126, 3-25.
- Robins, R. W., Fraley, R. C., Roberts, B. W., & Trzesniewski, K. H. (2001). A Longitudinal study of personality change in young adulthood. *Journal of personality*, 69, 617-640.
- Rothbart, M., & Taylor, M. (1992). Category labels and social reality: Do we view social categories as natural kinds? In G. Semin & K. Fiedler (Eds.), *Language and social cognition* (pp.11-36). London: Sage.
- Su, S. K., Chiu, C.-Y., Hong, Y.-Y., Leung, K., Peng, K., & Morris, M. W. (1999). Self organization and social organization: American and Chinese constructions. In T. R. Tyler, R. Kramer, & O. John (Eds.), *The psychology of the social self*(pp.193-222). Mahwah, NJ: Erlbaum.
- Triandis, H. C. (1989). The self and social behavior in differing cultural contexts. *Psychological Review*, 96, 506-520.
- Watson, D., & Walker, L. M. (1996). The long-term stability and predictive validity of trait measures of a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567-577.
- 1 차원고접수 : 2009. 07. 13.
수정원고접수 : 2009. 08. 26.
최종게재결정 : 2009. 08. 28.

Korean University Students' beliefs about the essence of psychological traits

Choi, You-jung

Song, Hyun-joo

Dep. of Psychology Yonsei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whether Korean adults believe psychological traits can be relatively stable, consistent, likely to be present at birth, and biological based. One-hundred college students participated in Study 1 and the other 100 college students participated in Study 2. Overall, the results showed that Korean adults have beliefs that resemble the incremental views regarding traits: which they believe are changeable and are highly influenced by a given environment. The Korean adults exhibited very coherent beliefs about psychological traits. Among the traits analyzed, Korean adults seemed to believe that 'intelligent,' 'slow witted,' and 'stubborn' are more stable traits than other traits, but 'energetic' and 'not good at study' are more changeable than other traits. This research is an attempt to investigate the nature of Korean adults' beliefs about psychological traits. The results will provide a foundation for future studies on the development of beliefs about traits.

Key words : traits, essence, social cognition, person perception